

## 5 ITIF, 해밀턴 지수 보고서에서 중국의 첨단 산업 지배력 강화 경고

→ 미국 정보통신혁신재단(ITIF)은 '26년 해밀턴 지수\*' 보고서\*\*를 발표하고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지배력이 강화된 반면, 미국의 산업 기반은 약화되었다고 경고(26.5)

\* Hamilton Index : ITIF 산하 해밀턴 산업전략센터가 개발한 국가별 첨단 산업 경쟁력 및 생산 역량 분석 지표

\*\* The Hamilton Index, 2026: China's Dominance in Advanced Industries Is Growing

● (개요) 보고서는 현대 경제 성장의 핵심인 10개 첨단 산업 부문\*에 걸쳐 전 세계 39개국의 생산 역량과 산업 경쟁력을 분석

\* IT·정보서비스, 컴퓨터·전자 제품, 화학, 기계·장비, 기초 금속, 자동차, 가공 금속, 제약, 전기장비, 기타 운송장비 등 10개 산업 부문을 평가

※ 분석에는 OECD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 데이터(1995~2022)를 활용

- 첨단 산업 관련 부가가치 생산에서 국가별 점유율을 산출하고, 첨단 산업 특화 입지계수(LQ\*)와 특화 지수(specialization index)\*\*를 도출

\* Location Quotient : 국가 경제 규모 대비 첨단 산업에 얼마나 특화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, 세계 평균(1.0)을 기준으로 그 이상을 기록하면 '약진(overperforming)'한 것으로, 세계 평균 미만인 경우 '부진(underperforming)'한 것으로 간주

\*\* 국가의 산업 생산이 특정 활동이나 품목에 얼마나 편중되어 있는지는 나타내는 지표로, ▲0.06 미만(산업 생산이 고르게 분포), ▲0.06 이상~0.17 미만(중간 정도의 집중도), ▲0.17 이상(매우 높은 집중도)으로 구분

- 그 결과, '22년 전 세계 10대 첨단 산업 관련 총생산 규모는 11조 9,000억 달러로, 세계 경제 총생산에서 11.6%('08년 10.3% 대비 상승)를 구성

- 세계 각국은 첨단 산업 생산에서 더 큰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 중으로, 특히 중국은 최근 10여 년간 첨단 산업 생산을 매우 빠르게 확대하며 미국을 제치고 선두 자리를 차지

- 미국은 중국에 추월당한 이후 격차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

- 국가별 성과는 엇갈렸으나 전체적으로는 첨단 산업의 선두 주자였던 OECD 국가들이 추종자로 전락하고 베트남 등 신흥국들의 존재감이 확대

● (중국의 성장세 지속) 전 세계 첨단 산업 생산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'12년 19% 였으나 '22년에는 약 4분의 1(24.9%)로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유지

- 중국은 10대 첨단 산업 중 무려 7개 부문에서 생산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, 특히 기초 금속 분야에서 전 세계 생산의 42.1%를, 전기장비 분야에서는 38.5%를 점유

※ 10개 첨단 산업 분야 중 중국은 컴퓨터·전자 제품, 화학, 기계·장비, 기초 금속, 자동차, 가공 금속, 전기장비의 7개 부문을 선도하고, 나머지 3개 부문은 미국이 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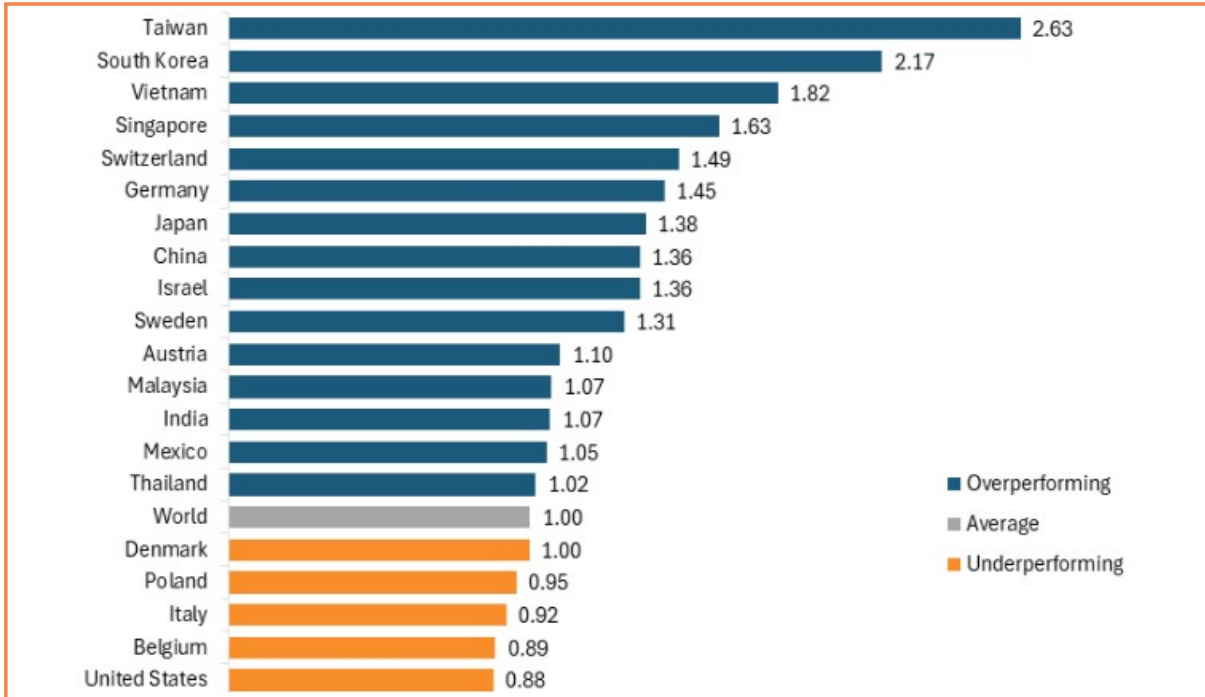


- 또한 특화 지수는 0.02로 10개 산업에 걸쳐 생산 능력이 고르게 분산된 것으로 평가되어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미국과는 대조적인 결과를 제시
  - ※ 미국은 IT·정보서비스가 국가 전체 첨단 산업 생산의 32%를 차지하고 산업 집중도를 나타내는 특화 지수도 0.07 수준
- '22년 중국의 LQ는 1.36으로 세계 평균(1.0)보다 36% 높지만 '12년(1.57)에 비해서는 하락했는데, 이는 중국에서 첨단 산업이 약화된 탓이 아니라 해당 기간 GDP(연평균성장률 약 9%)가 첨단 산업보다 빠르게 성장한 결과
- **(미국의 침식)** 미국은 '12년까지는 전 세계 첨단 산업 생산을 선도했으나 이후 중국에 추월당해 현재는 글로벌 점유율 22.3%로 2위를 기록 중
  - LQ는 0.88로 세계 평균을 하회하고 있어 미국의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 첨단 산업 부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
  - '22년 LQ를 세계 평균(1.0)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미국에 추가로 필요한 첨단 산업 부문 생산 규모는 3,700억 달러로, 컴퓨터·전자 제품 부문 생산을 두 배로 늘려야 겨우 달성할 수 있는 수준
  - 미국은 IT·정보서비스 부문에서는 여전히 전 세계 생산량의 36.1%를 차지해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해당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첨단 분야에서는 산업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평가
    - ※ 1995년 이후 미국의 첨단 산업 부문별 LQ 추이는 IT·정보서비스, 제약, 기타 운송장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향해 '22년 기준 세계 평균을 하회
- **(동아시아 국가들의 성과는 대조적)** 대만은 반도체 산업에 힘입어 컴퓨터·전자 제품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준 반면, 한국과 일본의 성장세는 약화
  - **(대만)** 대만의 LQ는 2.63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특히 컴퓨터·전자 제품 부문 LQ가 12.88에 달해 반도체 산업의 기적을 보여주었으나, 첨단 산업 생산의 3분의 2가 컴퓨터·전자 제품에 치중된 것은 취약점으로도 작용
  - **(한국)** 한국의 LQ는 2.17로 여전히 높긴 하지만 '18년까지 이어진 성장세가 역전되어 컴퓨터·전자 제품 생산 규모가 '18년 이후 100억 달러 이상 줄었고, LCD·OLED 디스플레이 생산에서 중국에 1위 자리를 빼앗긴 상황
    - ※ 같은 기간('18~'22년) 중국의 컴퓨터·전자 제품 생산 규모는 840억 달러 증가
  - **(일본)** 1995년 당시 일본의 첨단 산업 글로벌 점유율은 24%로 1위였으나 '22년에는 5.8%로 급락했고, 특히 전기장비 부문의 점유율이 33.9%에서 8.1%로 약 26%p나 하락
- **(유럽의 상황은 전체적으로 암울)** 유럽에서는 가장 발전된 경제를 가진 국가들조차 첨단 산업 생산에서 전반적으로 존재감을 상실

- **(독일)** 독일의 LQ는 1.45로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'13년에서 '22년 사이 10대 산업에서 자동차(LQ 3.54)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부문에서 상대적 성과가 하락
- **(프랑스)** 1995년 이후 '22년까지 첨단 산업 생산에서 프랑스의 점유율은 4.2%에서 2%로 하락했고, 에어버스의 성공으로 그나마 강력한 산업 부문인 기타 운송장비의 글로벌 점유율도 0.3%p 하락해 현재 약 5% 수준에 불과
- **(영국)** 프랑스와 유사하게 영국 역시 같은 기간 글로벌 점유율이 4.5%에서 2%로 하락했고, 종합 LQ가 0.67에 불과한 가운데 특히 기초 금속 부문의 LQ는 0.19로 사실상 산업으로서의 의미를 상실
- **(베트남·인도 부상)** 베트남은 '13년 이후 전 세계 첨단 산업 생산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달성했고, '제2의 중국'이라 불리는 인도 역시 성장세를 제시
  - **(베트남)** 베트남의 LQ는 '13년 대비 44%p 증가한 1.82로 국가들 중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는데, 특히 삼성이 베트남을 주요 스마트폰 생산 기지로 삼은 이후 10여 년 사이 컴퓨터·전자 제품(LQ 8.73) 부문이 크게 발전
  - **(인도)** 인도의 첨단 산업 생산 점유율은 '22년 3.5%로 1995년 대비 약 3배 확대되었고 그중에서도 IT·정보서비스(LQ 2.16) 부문이 급성장했으나 인프라 부족, 복잡한 규제, 인력 불균형 등이 산업 도약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
- **(OECD 국가들의 산업 리더십 상실과 일대일로 국가들의 성과)** OECD 국가들이 첨단 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'12년 64%에서 '22년 58%로 감소
  - 반면, 일대일로 회원국\* 집단의 LQ는 1995년 0.90으로 저조했으나 '22년에는 1.14로 상승하면서 세계 산업 질서가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
  - \* 중국이 주도하는 거대 경제권 구상인 '육·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'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150여 개 국가로, 중국을 비롯해 오스트리아, 방글라데시, 인도네시아, 베트남 등을 포함
- **(총평)** ITIF는 첨단 산업 생산에서 중국이 세계 선두 주자로 발돋움하면서 미국 및 서방 동맹국들에 직접적인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경고
  - 더욱이 첨단 산업이 국방 물자 공급망, 디지털 인프라, 그리고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면서 중국의 성장이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의 기술·경제적 역량과 국가적 위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
  -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산업 기반 약화를 막고 기술·경제·안보 측면의 압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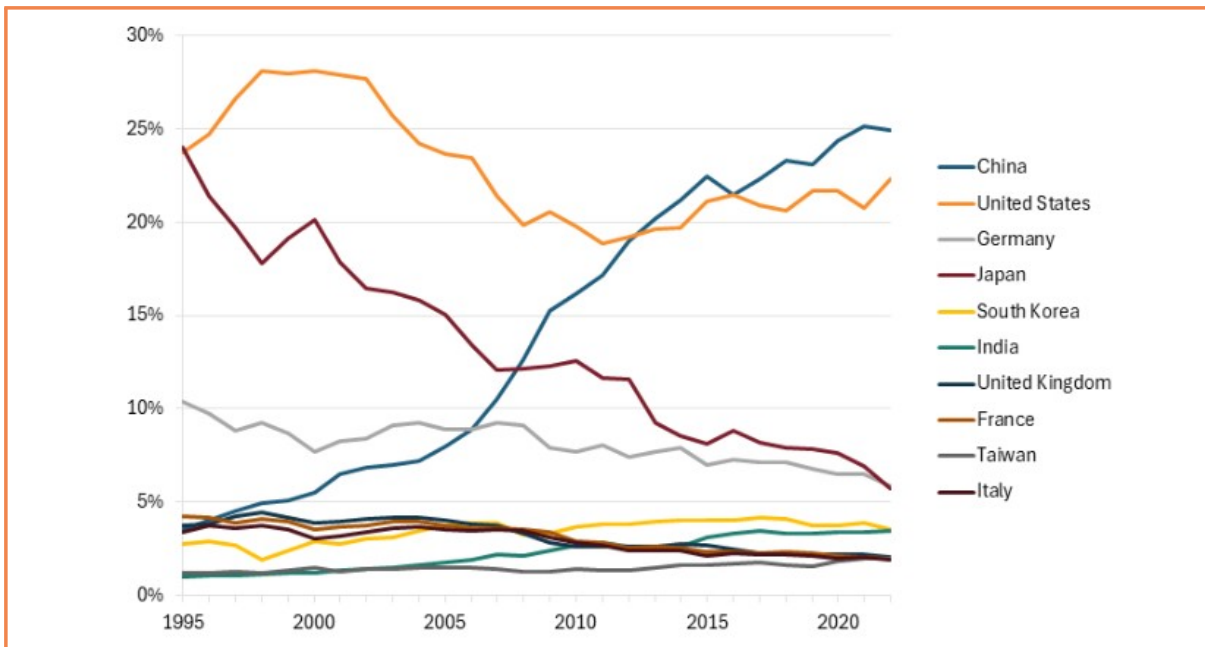


〈 '22년 종합 LQ를 통해 본 국가별 상대적 성과(상위 20개국) 〉



출처 : The Hamilton Index, 2026

〈 첨단 산업 생산에서 국가별 점유율 변화 추이(상위 10개국) 〉



출처 : The Hamilton Index, 2026

출처 :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(ITIF) (2026.5.6.)

<https://itif.org/publications/2026/05/06/hamilton-index-2026-chinas-dominance-in-advanced-industries-is-growing/>

<https://www.deshkalnews.com/opinion/28878>